

일병목회강좌 이사야 3강

정리 : 최희영 목사

1. 회복의 약속에 담긴 그의 의지, Text (제 2 이사야)

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된 자리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약속들이다.
-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이상의, 그 역사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주의를 집중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Tex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라. 단순한 윤리나 인과응보 이상의 것이다.

② 예언된 실패가 주는 문답

-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일은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다.
-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경계하고도, 조심하고도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 역사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일어난다
- 구약의 가장 큰 사건 둘은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이다.
- 출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과거의 증언이라면, 바벨론 포로는 (그 신실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낸 백성을 바벨론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럴 거면 무엇 때문에 꺼냈느냐?
 - 꺼낸 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바벨론에 판 것으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실패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잘못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③ 역설, 다른 실체의 차원

-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부하고 불순종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모순을 하나님은 묶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 우리의 이해관계와 납득과 알고 있는 방법보다 더 크지 않으면 하나님일 수 없다. 구원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과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면, 구원일수도 창조일수도 없다.
- 성경이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 듣는 이유는, 더 큰 차원의 것을 한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충돌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가 충돌하는 것도 둘을 같은 평면, 같은 차원에서 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믿음, 하나님의 방법

① 아브라함과 믿음

-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게 원인과 근거 없이 목적으로 불러오는가를 보여주는 데 소용된 인물이다.
-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다.
- 승리와 가치, 생명과 진리, 행복과 보람을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원인 없이 만들 수 있다.
- 실패, 원망, 분노, 자책하는 자를 기쁨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유도 조건도 없이 복을 내리실 수 있고, 우리의 실패와 원망을 뒤집을 수 있다.
- 우리를 실패와 원망 속을 견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② 원칙과 은혜, 무대와 연주

- 은혜는 인과율이라는 대원칙을, 원인과 보상의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연주가 펼쳐지듯 인과율이라는 대원칙 위에 있다.
-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주는 어떤 고난들은 대원칙 속에서 그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뭔가를 더 담고 영광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로 설명한다.
- 성경에 줄 쳐 놓은 것은 전부 '심는 대로 거둔다'에 줄 쳐냈다. 무대만 지키고 있는 것이다.
-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역사에 빚어지는 비극들이 주는 진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고 그의 의지와 그의 뜻을 아무것도 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③ 반론과 극복, 이스라엘 역사

- 우리의 죄성이 당연히 제시하는 반론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는 나쁜 생각이다.
- 성경의 긍정적 약속이 이 반론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다.

울고, 후회하고 자책하고를 실컷 경험해서 드디어 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기게 된다. 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신앙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아무리 잘못 했을 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며, 죄 가운데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이권 아니라고 철이 드니까 돌아온다. 이스라엘 역사다. 잘 한 적이 별로 없고 구원을 받으니까 희망이 있다.

3. 우상, 사람의 방법 (사42:5-8; 44:9-17)

- 성경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상이다. 회복과 용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우상이다.
-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을 대표적 행위로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데 그것보다 깊다.
- 우상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며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자리에 우상을 끌어다 당신을 비교하신다.
- 우상이란 하나님의 뜻과 내용에 못 미치는 목적과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용에 못 미치는 다른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과 소원의 극치를 형상화한 것이다.
- 우상에게는 방법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내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제공해 달라고 제물을 드려 제사해 초월적 힘을 부여 받으려는 것이다.
- 하나님이 우상을 증오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과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궁극적 내용과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시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전부 우상이다. 그러니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예수, 타협을 거부한 방법 (행4:8-12)

① 그 이름의 비밀

-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여야만 한다.'는 표현은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의 육신, 성육신의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방법을 말한다.
 - 친히 육체로 와 우리의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같은 실존을 걸어 하나님을 순종하여 우리 손에 죽으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말한다.
 - 이런 진정성과 구체성을 가지지 않는,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죽어야 되는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이나 수준의 것은 전부 다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 능력, 영광, 생명 모든 것이 된다. 오해 받고 우리 손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보상과 영광이 된다. 이런 모순이 기독교가 외치는 것이다.

- 믿음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과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참된 해석자이다”

② 모욕 받는 하나님, 십자가

-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 하나님이 모욕을 받았다.

-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다.

-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언한 것이 십자가다.

-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만 잘잘못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것이며, 무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담고 있다고, 틈을 벌이고 우리를 이 평면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③ 고난, 평면에서 공간으로 올림

- 완전한 자 옴에게 찾아 온 환난은, 그를 원래 있던 무대에서 공연자의 자리로 떠민다.

- 인과율이 전부였던 차원에서 발을 붙일 수 없어서, 거기서 압박을 당하고 쫓겨나 창조 의 세계로 들어선다.
- 창조의 세계란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만들어 놓은 세계에 인과율과 자연법칙에 묶여 있지 않고 그 무대 위에 어떤 예술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 주인공이 우리다.

- 우리를 자연세계의 질서와 조건 속에 넣어 놓았지만 그의 일부가 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함께 하는 동역자로서의 지위로 훌쩍 붙들려 올라오는 것이다.

5. 고난의 방법 (사53장)

-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실체, 모범 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다. 대속이나 억울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억울한 고난에도 침묵한다.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가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중요한 방법이다.

- 하나님이 이 방법을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으로 선언하셨다.(빌2:5-11)
- 이런 모순과 역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6. 시간, 은혜를 담다.

① 비, 내리고 흐르는 (사55:1, 6-11)

- 여호와를 만날만할 때는 초시간적 결심이나 각오 혹은 각성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 흐르는 것과 같이 시간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우리는 한번 올바른 선택과 각오와 헌신을 하면(초시간적), 그 다음은 기계적인 안정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밤낮 요구한다.
- 신앙의 현실은 늘 겁이 나고 아슬아슬한 것이다. 당연한 믿음의 과정이다.
-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도 실패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다시 인생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에서 만드신다는 것을 확인하라.

② 시간, 흐르고 쌓여가는 (엡5:6-18)

-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빛이 되라는 말은, 이런 방향과 분별이 우리 생의 현장에서 매일 매일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 같은 방향이라도 한 걸음 간 것과 두 걸음 간 것이 다르듯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둠의 자녀로 사는 것과 다른 차이가 매일 발전한다. 그리고 반복함으로써 늘어난다.
-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 세월을 아끼라. 매일 매일 커라.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루 하루씩 크라.
-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 허락한 하나님의 기회이다.
- 명예와 영광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자라라. 성령 충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루만큼 씩의 진전, 누적, 경험, 기회들을 말한다.
-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각 층이 가지는 다양함으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혼자서 할 수 없다.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주셨다.

-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사회와 시대 속에서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 눈물과 혹은 기쁨과 감사와 원망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다.

③ 제2이사야의 Text

- 너희 회복과 용서는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를 넘어 - 너희가 잘할 때 주는 보상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시는, 너희에게 허락한 궁극적 승리와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 그러니 너희가 당한 이 고난을, 이 역사를 손해 되게 하지 말라.
-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부활을 거치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영광되고, 더 놀랍게 만들어 가신다.
 - 예수 안에서 보는 부활의 영광같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을 배신하고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이 아닌 자기들이 요구한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자'는 선택을 하여,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포로로 가서, 우상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궁극적 권력이 폭력에 불과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권력을 폭력을 쓰시지 않으시며 그의 권력을 아버지의 권위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비교해서 배우게 된다.